

문화도시 광주, 지역문화종합지수 전국 10위권 밖

문체부 '지역문화실태조사'

광주의 지역문화예술법인·단체 수는 평균 14.6개(전국 평균 4.8개), 문화예술 관련 사회적 기업 수는 4.8개(전국 평균 1.7개)로 타시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문화시설 수 또한 광주가 평균 83개(전국 평균 30.5개)로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광주가 타 지역에 비해 생활문화 시설이나 문화예술 법인, 단체가 많으며 활동조직도 잘 구성돼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문화정책, 문화자원, 문화활동, 문화향유 등을 모두 고려한 '지역문화종합지수' 부문에서는 상위권에 들지 못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13일 2017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는 문화예술 교육사 수가 전국 평균 58명에 비해 168.8명으로 상위권이었고 인구 만 명당 문화예술교육사 수도 6명으로 전국 평균 2.3명에 비해 훨씬 많았다.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문화예산과 기반시설은 군(郡) 지역이 시(市)보다 우위에 있지만 예술인이나 문화예술단체는 여전히 도시 지역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문화예술 법인·단체 평균수를 시·군·구 지역별로 보면 도시지역인구가 8.8개로 시 5.2개, 군

문화예술 시설·단체 많지만 정책·자원·활동 등은 떨어져

한국인 1인당 문화예산 10만 2100원...전주시 1위

지역문화 지수 광주 북구·전남 강진군 각각 10위권 진입

1.1개보다 월등히 많았다. 특히 인구 1만 명당 등록 예술인 수는 서울이 평균 23.3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우리나라 1인당 문화예산은 10만 2100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시·군·구 지역별로 보면 군이 18만2000원, 시가 9만 2000원, 구가 1만8500원으로 1인당 예산으로 보면 구 지역이 시 지역이나 구 지역에 비해 훨씬 많 《은 문화 관련 예산을 배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각 지표에 가점을 배정해 수치로 환산한 '지역문화종합지수'는 229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전북 전주시가 가장 높았으며 경기 수원시가 뒤를 이었다. 전주시와 수원시는 2회 연속 1, 2위를 차지했다. 그에 비해 광주시는 상위 10개 지역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구별, 군별 '지역문화종합지수'에서는 광주 북구와 전남 강진군이 각각 상위 10위에 진입했다. 군 지역에서는 경북 성주군이 가장 높았고 구 지역에서는 서울 중로구가 가장 높았다.

그러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문화종합지수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에 따른 격차는 여전히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하위요소인 문화정책과 문화자원 부문의 경우 2014년 기준 조사에 비해 그 격차가 완화된 점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하위요소인 문화정책·자원 부문은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더 높았는데 이는 문화 분권을 중시한 정부의 정책기조와 지역문화에 관한 지자체의 관심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무용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장은 "문화지표를 높이려면 생활문화 차원에서 문화접근성과 향유권을 높여야 한다"며 "광주정신을 문화자산화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동력으로 차별화하고 생활공간을 문화공간화하는 일상문화공간 프로젝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해 진행했으며 문화정책, 문화자원, 문화활동, 문화향유 4대 부문 28개 문화지표를 적용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분야 공공서비스 공급 현황 파악 등을 위해 실시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자유한국당 이현승 당 대표 비서실장(왼쪽 두번째)이 13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5.18 민주유공자유족회 등 관계자들을 면담하며 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5.18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5.18 망언의원 즉각 퇴출과 왜곡방지법 제정을 자유한국당에 촉구하며 서한을 전달했다. /연합뉴스

“황교안 대표, 5·18망언 3인방 제명하고 왜곡처벌법 협조하라”

5·18기념재단 3단체 대표

한국당 방문, 촉구 서한 전달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대표들은 13일 국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실을 방문, “5·18 망언을 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들이 진실을 외면하고 본분을 망각해 국민을 배신했다”며 “황 대표가 5·18 망언을 한 의원을 즉각 제명하고 왜곡처벌법을 제정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

5·18기념재단과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대표 등은 이날 황 대표에게 직접 이 같은 요구를 할 계획이었으나 황 대표가 자리를 비워 이현승 대표비서실장에게 서한을 전달하는 데 그쳤다.

이들은 서한에서 “김진태 의원은 당 대표 선거에 나와 변명과 책임 회피를 일삼았고, 김순례 의원이 최고위원에 당선되는 ‘막장 드라마’가 연출됐다”며 “황교안 대표는 징계와 의원직 제명이 아닌 그들을 옹호하고 두둔하는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진짜 국민을 위한

정당이 될 것인지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며 “소수의 극우가 조장하는 분열의 속삭임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김 의원 등 3명에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의원직을 박탈시켜야 한다”면서 “자유한국당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모독을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앞서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이 같이 주장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청와대 미세먼지 범국가기구 박차...반기문 위원장 맡을 듯

청와대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범사회적 기구를 구성하자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의 제안을 적극 수용했다. 또 손 대표가 기구 구성과 함께 기구의 위원장으로 추천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이른 시일 내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반 전 총장은 오는 15일 귀국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 측에서는 조만간 반 총장을 만나 미세먼지 사회적기구의 구성과 운영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브루

나이 국민방문 중 김수현 정책실장으로 부터 미세먼지 관련 대책을 보고받고 손 대표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반 전 총장이 유엔 사무총장 시절 파리기후협정을 성사시킨 경험이 있다는 점 등에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사회적기구 초대 위원장직에 적임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반 전 총장이 아시아판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보아오 포럼의 이사장을 맡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중국과의 공조

도 중요한 만큼 반 전 총장의 외교적 역량 등을 통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리라 기대했다는 것이다.

반 전 총장 역시 기구 위원장직 수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 대표가 반 전 총장 측에 위원장직을 타진했고, 긍정적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미세먼지는 문재인 정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반 전 총장이 사회적기구 위원장을 맡아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예술과 디자인 역사의 물줄기 바꾸다



김은영의 '그림 생각'

(259) 바우하우스 100년

삼십여 년 전, 현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인근에 '바우하우스'라는 멋진 레스토랑이 문을 열었다. 이국적인 인테리어와 모던한 분위기는 곧장 입소문이 나더니 문화예술계 명망자들이 단골이 되었다. 20대 초반 시절 어찌다 특별한 날 친구들과 함께 그곳에서 카레라이스나 하이라이스를 먹으며 문화예술인양 품생 품사했던 기억이 난다. 그곳을 드나들면서 레스토랑 '바우하우스'가 예술과 디자인에서 모든 것을 바꾸었던 새로운 개념의 학교인 '바우하우스'에서 비롯되었

음을 알게 되었다.

꼭 100년 전인 1919년, 건축가 발터 그로피우스는 모든 조형미술의 궁극적인 목표는 건축에 있다는 생각과 더불어 건축과 조각, 회화를 하나의 종합체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미술운동을 기본 이념으로 하는 바우하우스를 열었다. 독일 바이마르에 설립된 바우하우스는 이후 데사우, 베를린으로 이주하고 1933년 나치에 의해 폐교되었으나 100년이 흐른 우에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 살아있다.

대부분의 미술대학 커리큘럼은 바우하우스 프로그램으로부터 발전되었고, 최근 독일은 물론 우리나라 여러 곳에서 '바우하우스 100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당대 최고의 화가였던 파울 클레, 바실리 칸딘스키도 바우하우스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특히 칸딘스키는 바우하우스에서의 강연록을 바탕으로 불후의



칸딘스키 작 '심사가 없는 전시를 ...'

명저 '점·선·면'을 출간하기도 했는데 이 책에서 그는 회화가 갖는 기본적인 조형요소들을 기술하면서 자칫 무미건조할 수 있는 조형적 사고의 직관과 상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칸딘스키의 '심사가 없는 전시를 위한 벽화 디자인 벽 B' (1922년 작)는 바우하우스의 사정각실 바닥에 캔버스를 펼쳐놓고 그린 방대한 작업으로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는 동시에 건축물을 수용하는 회화의 의미를 실현한 작품이다. 칸딘스키는 바우하우스에 재직하는 동안 수많은 수채화 외에도 3백 점의 유화도 제작하였는데, 이 시기의 작품들은 바우하우스를 설립한 그로피우스의 목적대로 예술의 실용성을 시도한 것이어서 눈여겨볼만 하다. <미술사박사>

2019 영암왕인문화축제

2019. 4. 4(목) ▶ 4. 7(일) 왕인박사유적지 일원

주요프로그램 일정표

4.4(목)	4.5(금)	4.6(토)	4.7(일)
10:00 ▶ 12:00 왕인박사 춘향제	10:00 ▶ 12:00 왕인학생 예술대회	10:00 ▶ 11:00 태권도 & 기예무단 시연	10:00 ▶ 12:00 그림 빛꽃길 걷기대회
13:00 ▶ 14:00 왕인어린이 재롱잔치	12:00 ▶ 14:00 제29회 왕인박사 추모 한시연장백일장	10:00 ▶ 16:00 제5회 전국 천자문·경전 성독대회	11:30 ▶ 12:00 비보이 쇼베틀
14:00 ▶ 17:00 왕인박사 학술강연회	14:00 ▶ 14:30 성향예술단 전통문화공연	11:00 ▶ 13:30 전통다례 시연회 & 토크콘서트	12:00 ▶ 13:30 왕인전통은례식
14:30 ▶ 16:30 낭주골 어울마당	14:30 ▶ 16:00 영암 화전놀이 '氣 찬골잔치날'	13:30 ▶ 16:00 영암 3대 민속놀이	13:30 ▶ 14:00 나주시립합창단 초청공연
18:30 ▶ 19:00 개막행사	16:00 ▶ 17:00 추억의 동창회	16:30 ▶ 18:30 왕인 청소년 페스티벌	14:00 ▶ 16:00 왕인박사 일본가요 퍼레이드
19:00 ▶ 21:00 축하방송 & 불꽃놀이	17:00 ▶ 17:30 평양 민속예술단 공연	18:30 ▶ 19:00 왕인뮤지컬 갈라쇼	16:00 ▶ 17:00 왕인전통연희단 공연
	18:00 ▶ 18:30 왕인뮤지컬 갈라쇼	19:00 ▶ 20:30 100리 빛꽃 감성콘서트	18:00 ▶ 18:30 폐막행사
	18:30 ▶ 21:00 우리동네 문화인 페스티벌		18:30 ▶ 20:30 그림의 밤 & 불꽃놀이